

한국어 조사 용례의 적절한 반영을 위한 수정 제안

유선명*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개역개정』에서 한국어 조사 사용이 부적절해 원문의 의미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예문들을 모아 유형화하고 현대 한국어 조사 용례에 비추어 적절한 수정 방안을 모색하는 시도이다. 여기서 ‘부적절함’은 문체와 어감의 영역이 아닌 의미론적 왜곡의 위험을 가리키며, 수정 제안은 원칙적으로 문장 내의 다른 구성 요소들의 수정을 최소화하면서 문체된 조사를 교체하는 것으로 한정할 것이다.

2. 비교의 조사 ‘처럼’, ‘같이’, ‘답게’

조사 ‘처럼’과 ‘같이’는 지시되는 개체와의 비교를 전제한다. 이 둘은 많은 경우 상호교체가 가능하지만, 국립국어원은 주로 ‘모양’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처럼’을, ‘전형적인 특징’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같이’를 쓰도록 제안하고 있다.¹⁾ 『개역개정』 성경에서 ‘처럼’이 사용된 구절 중 상당수는 ‘처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히브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백석대학교 구약학 교수. smlyu@bu.ac.kr. 이 논문은 백석대학교 2022년도 학술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1) https://www.korean.go.kr/front/onlineQna/onlineQnaView.do?mn_id=216&qna_seq=60780

림’ 대신 ‘같이’를 사용하는 것이 어감이 좋아 보이지만 의미상 오류는 아니며 본질상 문체와 어감의 문제로 판단된다.²⁾ 『개역개정』 본문에서 ‘처럼’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는 구절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한다.

2.1. ‘처럼’을 ‘답게’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회자가 청자에게 ‘-처럼’을 통해 청자가 이미 그러한, 자신의 본질과 속성에 부합하는 행동양식을 명령/권고하는 경우는 ‘-답게’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맥락에서 ‘-답게’를 사용한 경우로 고린도전서 16:13을 참조할 수 있다.

NTG ²⁸	Γρηγορεῖτε, στήκετε ἐν τῇ πίστει, ἀνδρίζεσθε, κραταιοῦσθε.
『개역개정』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u>남자답게</u> 강건하라
『공동개정』	여러분은 늘 깨어 있으십시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씩씩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십시오.
『새번역』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하십시오.
NIV	Be on your guard; stand firm in the faith; be men of courage; be strong.
NAS	Be on the alert, stand firm in the faith, act like men, be strong.

『공동개정』과 『새번역』이 그리스어 원문에 근거한 ‘남자다움’이라는 연상을 버리고 ‘용감함’을 취한 것은 원문이 요구하는 것이 남성에게만 가능하거나 요구되는 것이 아닌 보편적 인격 요소라는 이해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수정 원칙이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을 예민하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남자답게’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와 비슷한 경우로 청자의 본질이나 상태에 걸맞은 생각과 행동을 요구하는 아래 구절들은 ‘-처럼’이 ‘-답게’로 수정될 때 의미를 더 잘 드러낸다고 판단된다.

2) 위 국립국어원의 해설에 따르면 겔 11:19의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보다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호 4:1의 ‘암소처럼 완강하니’보다는 ‘암소같이 완강하니’가 선호되지만, 현재 번역을 오역이나 비문으로 볼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2.1.1. 욥기 38:3

- 『개역개정』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 지니라
- 『공동개정』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나 이제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해 보아라.
- 『새번역』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³⁾
- NIV Brace yourself like a man; I will question you, and you shall answer me.
- NAS Now gird up your loins like a man, And I will ask you, and you instruct Me!

수정 제안: 너는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내가 물겠으니 너는 **대답하거라**

2.1.2. 욥기 40:7

- 『개역개정』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물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 『공동개정』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나 이제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하여라.
- 『새번역』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 NIV Brace yourself like a man; I will question you, and you shall answer me.
- NAS Now gird up your loins like a man; I will ask you, and you instruct Me.

히브리어 원문(MT)은 “내가 물겠으니”(히, 에쉬올레카) 앞에 접속사 바브(waw)가 없는 것을 제외하면 욥 38:3과 동일하다. 히브리어 문장의 번역에서 이 waw의 의미적 기여는 미미하여 굳이 ‘그리고’ 등의 접속사로 반영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러한 형태소의 대응관계를 반영하여 아래 수정을 제안한다.

수정 제안: 너는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내가 물겠으니 너는 **대답하거라**

3) 고전 16:3의 번역에서 ‘남자다움’을 포기한 『공동개정』과 『새번역』이 욥 38:3에서는 ‘대장부다움’을 유지한 것은 흥미롭다.

2.1.3. 에베소서 5:8

- 『개역개정』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공동개정』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새번역』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NIV Live as children of light.
NAS walk as children of Light.

수정 제안: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2.1.4. 에베소서 6:6

- 『개역개정』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수정 제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답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본문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은 그렇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경우이므로 ‘처럼’이 적절히 사용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종들처럼’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전제한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종들답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5. 골로새서 3:12

- 『개역개정』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기록하고 사랑 받는 자 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수정 제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기록하고 사랑 받는 **자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2.1.6. 야고보서 2:12

- 『개역개정』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수정 제안: 너희는 자유의 **율법에 따라** 심판 받을 **자답게**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2.1.7. 베드로전서 1:14-15

『개역개정』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수정 제안: 너희는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순종하는 자식답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순종하는 자식’은 과거 ‘알지 못할 때’가 아닌 현재의 신분과 상태를 가리킨다. 따라서 ‘순종하는 자식답게’로 수정하고, 그 신분에 근거한 행동수정의 명령인 ‘거룩한 자가 되라’에 직접 연결되도록 어순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그들이 가진 사욕은 본받음의 대상이 아닌 행동의 동력이므로 ‘본받지 말고’ 대신 ‘따르지 말고’로 추가 수정을 제안한다.

2.2. ‘같이’를 ‘답게’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벧전 4:10)
『개역개정』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수정 제안: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칭지기답게 서로 봉사하라

2.3. ‘답게’를 ‘처럼’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갈 2:14)
『개역개정』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수정 제안: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앞의 것은 적절하지만, 뒤의 것은 ‘유대인처럼’(이방인이 마치 유대인인

양)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하나님에게 쓰인 주격조사

3.1. ‘은, 는’을 ‘이, 가, 께서’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조사 ‘은, 는’과 ‘이, 가, 께서’는 대부분의 경우 상호교체가 가능하지만, 출애굽기 15:3의 경우(아래 지문 #5) 양자 간의 의미 차이가 두드러진다. ‘는’과 ‘껴서’의 등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예로, 평행법이 사용된 구절에서 두 조사가 짝으로 사용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 시라 여호와껴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들이 되시나니(시편 121:5).”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와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껴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신 29:20).” 아래 예시는 문장의 주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안들이다.

3.1.1. 창세기 27:28

『개역개정』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수정 제안: 하나님껴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3.1.2. 창세기 30:24

『개역개정』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수정 제안: 그 이름을 요셉이라 부르고 여호와껴서 나에게 아들 하나를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3.1.3. 창세기 31:53

『개역개정』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수정 제안: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3.1.4. 출애굽기 5:21

『개역개정』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수정 제안: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3.1.5. 출애굽기 15:3

『개역개정』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수정 제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시다

앞 문장은 여호와로 불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서술의 문장인데 반해 뒤 문장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임을 밝히는 식별의 문장이므로 조사 ‘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3.1.6. 민수기 6:24-26

『개역개정』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
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수정 제안: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이라 하라

『개역개정』은 제사장의 기원문인 이 본문의 다층적 인용 구조를 따옴표 없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하는데, 그 결과 “여호와는 …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가 하나님을 주어로 한, ‘하나님의 소원’을 서술하는 문장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다. “여호와께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행동하시기를 제사장이 원한다고 회중에게 선포하라”라는 구조를 더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여호와’를 ‘여호와께서’로 바꾸고 문미의 ‘원하며’를 없애 기원문으로 단순화하면 전체 문장의 뜻을 더 명확히 표현할 수 있다.

3.1.7. 여호수아 22:23

『개역개정』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수정 제안: **여호와께서** 친히 벌하시옵소서

3.1.8. 사무엘하 3:39

『개역개정』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수정 제안: **여호와께서**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3.1.9. 역대하 24:22

『개역개정』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수정 제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3.1.10. 욥기 11:5-6

『개역개정』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수정 제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3.1.11. 욥기 21:19

『개역개정』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 두시며

수정 제안: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 두시며

3.1.12. 시편 27:1

『개역개정』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 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 하리요

수정 제안: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

위하리요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1.13. 시편 57:5, 11

『개역개정』 하나님이어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수정 제안: 하나님이어 **주께서**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3.1.14. 시편 67:1

『개역개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수정 제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3.2. ‘은/는’을 ‘만이’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아래 두 절은 ‘하나님은’이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는 ‘하나님만이’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이다. 본문의 의도는 ‘여호와가 하나님 아닌 그 무엇이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강조하는 데 있다.

3.2.1. 신명기 4:35

『개역개정』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수정 제안: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2.2. 신명기 4:39

『개역개정』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
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수정 제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만이**
이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4. 나가는 말

위에 열거한 본문들은 특별한 해석학적 난점이 없는 평이한 문장들이며 수정 제안 내용 역시 정교한 논증을 요하지 않는 무난한 해법이다. 『개역개정』은 성도 개개인의 성경읽기는 물론 한국교회의 예배와 예전에서 보편적 지위를 확보한 공역본이다. 본고는 『개역개정』의 정확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개역개정 문장의 틀과 느낌을 대체로 보존하면서도 오해의 소지를 현저히 낮출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후로도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개역개정』이 새로운 세대에게도 변함없이 울림을 주는 새 옷을 입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투고 일자: 2022년 6월 15일, 심사 일자: 2022년 7월 8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7월 30일)